

조선후기 中華사상과 華西학과의 《華東綱目》의 간행^{*}

崔溶澈^{**}

< 목 차 >

1. 머리말
2. 明清교체와 조선의 小中華의식 형성 과정
3. 李恒老의 衛正斥邪상소와 柳麟錫의 義兵활동
4. 《宋元華東史合編綱目》의 편찬과 간행의 의미
5. 맺음말: 생각해 볼 문제들

1. 머리말

14세기 조선왕조의 건립에 중심역할을 하였던 신진 사대부 계층에서는 고려 말에 유입된 주자학의 원리를 국가 통치의 이념과 백성 교화의 근거로 삼았다. 주자학의 대표적인 저술이라고 할 수 있는 《사서집주》나 《주자가례》, 《통감강목》 등은 조선왕조 5백년간 변함없이 중요한 텍스트로서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사상적 지주가 되었다.

북방 이민족인 거란(遼)과 여진(金)의 연이은 거센 압력에 북송이 무너지고 남송정권이 들어섰을 때 漢族(華)과 夷狄(夷)의 민족적 우열과 문화적 우열을 강조하여 문화적으로 우수한 한족만이 중원에서 역사적 정통성을 가진다는 華夷觀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의거하여 남송의 朱子는 북송의 司馬光이

* 본고는 “思想與方法：歷史中國的內與外”國際高端論壇(北京師大, 2016.10)에서 발표한 中文논문 <朝鮮後期的中華意識與華西學派的《華東綱目》刊行意義>를 수정 보완한 논문임.

** 高麗大學校 中語中文學科 教授

찬술한 《자치통감》을 새롭게 정리하면서 孔子의 春秋大義사상을 강조한 《자치통감강목》을 지었다. 《통감강목》으로 불리는 이 책에서는 역사인물과 사건의 포편을 분명히 밝히며 尊王攘夷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華夷의 구분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綱目體란 역사적 사건위주로 간략하게 서술하되 독특한 史觀의 원칙에 의거하여 포편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서술한 역사기술이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明清교체기를 겪으면서 정체성의 혼란에 빠졌다. 한족의 명나라가 멸망하고 만주족의 청나라가 그 자리를 차지하여 중원의 황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주자학의 화이관을 핵심으로 하는 역사관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만주족의 청나라를 정통으로 인정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조선의 중화의식은 급속하게 진전되었다. 중원지역에 자리 잡고 있던 발달된 문화를 가진 중화는 이미 없어지고 야만의 이민족이 대신하였으므로 중화족 문화의 전통은 조선으로 옮겨서 그 명맥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인식이었다. 그래서 조선의 중화의식은 小中華라고도 했다. 《통감강목》에서 강조되었던 尊周사상과 華夷구분의 역사관은 조선후기에서 현실적으로 재현되었던 것이다.

본래 朝鮮은 女眞과 인접하여 살아왔다. 여진에서는 조선을 중시하였지만 조선에서는 여진을 야인으로만 취급하였다. 명나라의 국운이 기울고 여진족이 만주족으로 이름을 고쳐 청나라를 세우고 있을 때도 조선에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명나라 편을 들다가 침략을 당하였다. 이것이 곧 丙子胡亂이다. 결국 무력에 의해 군신관계로 변하여 대외적으로 淸나라를 섬기는 상태(事大)가 되었음에도 국내에서는 사대부들의 崇明排淸사상이 더욱 강화되었고 민간의 선비들은 사적으로 崇禎의 연호를 계속 썼다. 실제로 명나라에서 주자학의 이상이 실현된 것은 아니었지만 조선의 선비들은 宋明理學의 전통을 고수하면서 보수적인 화이관을 지속시켰다.

17세기 宋時烈(尤庵, 1607-1689)은 춘추대의 사상을 기반으로 孝宗 때 북벌을 추진하였고 명나라 萬曆帝의 再造之恩의 보답으로 萬東廟를 짓도록 유언했다. 尤庵의 사상은 19세기 李恒老(華西, 1792-1868)의 “尊中華, 攘夷狄”과

“衛正斥邪”의 주장으로 이어졌다. 이항로는 고종초기에 서양의 배가 조선해안을 침범하자¹⁾ 기존의 이적을 서양으로 대체하고 일본과 서양을 같은 부류로 간주하였다. 이항로의 위정척사 주장은 대원군이 쇄국정책을 펴면서 斥和碑를 세우는데 핵심사상을 제공하였다. 이항로의 제자들은 위정척사의 사상을 실천하기 위하여 일본의 침략에 맞서 지방에서 의병운동을 일으켰다. 李恒老의 영향을 받은 柳麟錫(毅庵, 1842-1915)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춘천에서 출생하였으나 柳重教가 세운 제천의 紫陽書社(초명 滄洲精舍)를 이어받아 유생들에게 강학을 하면서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고 민족적 자존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조선후기 이래의 견지해온 중화의식을 발양하면서 이항로의 위정척사 사상을 전면에 내세웠다. 얼마 후 이곳에는 유인석의 직계 학통인 朱子와 宋時烈, 李恒老, 金平默, 柳重教의 영정을 걸어놓고 제향을 지내게 되어 자양영당으로 개명하였다. 후에 이 영당에는 柳麟錫과 李昭應의 영정이 추가되었다.

마침 조선의 정국은 누란의 위기를 맞이하여 1895년 閔妃가 궁중에서 일본의 낭인에 의해 시해되고 전국의 유생들에게 단발령이 내려졌다. 마침내 유인석은 행동하는 지식인으로서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그는 전국의 유생들에게 격문을 돌려 제천 자양서당으로 모이도록 하고 의병을 일으켰다. 그는 의병단의 최고 책임자인 전국의병의 의병장이 되었다. 그의 한 평생은 이렇게 해서 국내와 해외에서의 의병활동으로 헌신하게 된다. 그는 또 李恒老의 지시와 유언에 의해 제자 柳重教(1821-1893)와 金平默(1819-1891)이 편찬한 《宋元華東史合編綱目》의 간행에도 심혈을 기울여 근 50년 만에 마침내 과업을 완수하였다. 이 책은 춘추대어의 역사관을 드러내면서 위정척사의 사상적 핵심을 담고 있는 역사서였다.

훗날 역사는 그들의 희망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조선은 허망하게 몰락하여 멸망하고 말았지만 당시 지식인들이 일관된 논지로 강조하였던 소중화사상과 위정척사의 운동은 조선 선비의 깨끗한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일례가 될 것이

1) 丙寅洋擾(1866), 대원군의 천주교 탄압에 항의하여 프랑스함대가 강화도에 침범한 사건. 이때 강화도의 外奎牽閣의 도서가 불태워지고 儀軌 등의 중요문헌이 약탈되었다.

다. 본고는 조선후기 지식인들이 고수하였던 중화사상의 맥락을 살피고 《화동강목》의 편찬과정과 더불어 이 책의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2. 明清교체와 조선의 小中華의식 형성 과정

조선은 일찍부터 중원으로부터 발달된 우수한 문화를 받아들여서 역대 왕조의 발전을 추구하였다. 조선은 중원 대륙과 지리적으로 상대적인 독립성을 갖고 있었지만 오랜 교류를 통해 뛰어난 문화를 제때에 받아들여 주변의 다른 민족과는 차별적인 입장에서 중화와 거의 유사한 문화민족으로 스스로 자각하게 되었다.

특히 조선왕조는 명나라를 대국으로 섬기면서(事大) 일본이나 주변국과는 이웃으로서 교류하는(交隣) 외교적 체제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고려 말 이래 전래된 남송의 朱子學을 기본 이념으로 국정 전반에 걸쳐 적용하여 실행하였으므로 명실공히 주자학의 나라가 되었다. 주자의 《사서집주》는 과거공부를 하는 모든 젊은 학도들의 기본 교재가 되었고 율기군자를 표방하는 올곧은 선비들의 필독서가 되었다. 《주자가례》는 왕실과 조정, 사대부 심지어 일반 백성의 관혼상제를 포함하는 일상사의 모든 의례를 주관하는 최고의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주자의 역사관을 담은 《자치통감강목》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새로운 역사관을 심어주었다. 본래 司馬光이 편찬한 《자치통감》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실은 큰 제목으로 만들어 綱을 세우고, 세부적인 내용은目中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엮어가는 역사서술 방식이었다. 공자가 엮은 《춘추》의 형식을 따라서 역사로부터 도덕적 교훈을 강조하려는 의도로서 춘추대의를 기준으로 역사적 인물과 주요 사건에 포폄을 가하는 것이었다.

朱子는 宋나라가 중원지역을 이민족인 金나라에게 빼앗기고 남하하여 동남방의 한 귀퉁이를 차지하여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현실적 인식에서 새로운

역사관을 강조하게 되었다. 司馬光의 《자치통감》에서 힘으로 중원을 장악한 정권에게 정통성을 부여하는 역사관을 반대한 것이었다. 이른바 대의를 중심으로 하는 정통관을 내세우면서 공자가 《춘추》에서 보여준 <尊王攘夷>의 사상을 이어받아 춘추대의를 강조하게 된 것이다. 《춘추》에서 주나라를 정통으로 존중하여 외적을 물리치고자 하는 尊周思想의 전통을 주자가 이어받아 남송의 정치적 현실에 대응한 것이었다. 주자의 《통감강목》에서 가장 두드러진 대목은 삼국시대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였다. 陳壽의 《삼국지》는 위나라를 정통으로 삼고 촉과 오를 부기하는 방식을 취했다. 劉備와 劉禪은 각각 先主와 後主로 불렸다. 삼국의 역사를 다시 보려는 시각은 이미 남조의 송나라(劉宋)에서부터 나타났다. 習鑿齒의 《漢晉春秋》에서는 이미 촉한을 정통으로 보는 시각을 명확하게 드러냈다.²⁾ 그러나 남조 때의 이러한 시도는 당나라와 북송을 거치면서 민간의 이야기로 전해질 뿐 정통문단에서는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남송이 된 것이다. 주자의 관점은 곧바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때마침 흥성하기 시작한 민간설화와 통속문화에서는 尊劉貶曹(유비를 존중하고 조조를 폄하하는 내용)의 기풍이 널리 퍼졌다. 원말에 만들어진 《삼국지통속연의》는 그러한 민중의 염원을 담고 있었다. 청나라초의 毛宗崗평점에서는 이러한 사상을 더욱 강조하였다. 몽고족이나 만주족의 치하에서 한족 문인이 느끼는 감정은 남송의 주자보다 덜하지 않았을 것이다.

송나라와 긴밀하게 교류하던 고려에서는 북방에서 발호한 거란족의 요나라, 여진족의 금나라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일찍부터 중원의 발달된 문화를 받아들인 문화국임을 내세우게 되었다. 송나라 쪽에서도 고려의 문화적 위상을 높여주면서 <소중화>로 지칭하였고 고려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스스로 <소중화>로 자처하게 되었다. 지리적으로 東夷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문화적으로는 文治를 통해 仁政을 베푸는 나라임을 강조하여 무력으로 강공하는 야만의 나라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었다.³⁾

2) 습착치 《한진춘추》의 漢은 후한에서 촉한으로 이어지며 그 정통이 쯤나라로 연계된다는 입장으로 한의 정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서다.

3) 고려 태조 王建은 《十訓要》에서 <우리나라는 중국문화를 흠모하여 문물과 예악을 모두

1392년 건립된 조선은 명나라를 종주국으로 삼아 대국으로 여기며, 부모의 나라로 모시는 형국이 되었다. 1592년 홀연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파죽지세로 몰려오는 왜군에 쫓겨 국왕 宣祖는 의주까지 몽진을 거듭하였다. 조선반도 전역이 왜군에게 유린되고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의병이 일어났지만 역부족이었다. 전라도 해안에서 李舜臣이 왜적을 막아내는 바람에 약간 승통이 트이긴 했지만 조선 조정에서는 시급히 명나라에 구원병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명나라는 萬曆황제 때였다. 명대후기 최장수 황제였던 만력제는 嘉靖帝와 마찬가지로 국정에는 별다른 관심도 없이 나라 살림을 환관에게 맡기고 있을 때였다. 그러나 豊臣秀吉이 조선으로부터 길을 빌려서 명나라를 치러 온다는 말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명나라에서 파견된 李如松, 楊鎬, 劉綎, 陳璘 등 장수들은 왜군과 직접 부딪쳐 싸우기를 꺼려했다. 이 여송이 평양을 탈환하는 등의 공을 세우기도 했지만 여러 번 패하면서 일본군과의 직접 전투는 꺼리는 분위기였다. 명나라와 일본은 정전회담을 열고 조선의 분할통치의 문제까지 꺼내어 논의하기도 했다. 회담이 지연되자 豊臣秀吉은 또다시 丁酉再亂을 일으켰다. 이번에는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전라도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났다. 李舜臣은 바다에서 최선을 다해 그들을 막아 돌아가는 왜군을 섬멸했지만 최후에 순국하고 말았다. 豊臣秀吉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전쟁은 맥없이 끝났고 조선의 君臣은 명나라에 대해 <再造之恩>의 은혜를 입었다고 고마워했다. 그러나 17세기 초 명나라의 운명은 기울기 시작하고 만주족의 청나라가 서서히 위세를 떨치기 시작했다. 누르하치(努爾哈赤)가 후금을 세워 명나라와 대결을 시작할 때 조선에서는 光海君이 적절하게 외교적 수완을 발휘하고 있었다. 조선은 여진족을 야인으로 불렀다. 여전히 야만적인 소수민족으로 여겼다. 조선 초기까지 함경도지역에 거주하던 여진과 조선은 소소한 갈등과 다툼은 있었지만 대체로 잘 지내는 이웃이었다. 여진족의 세력

증원을 따르게 되었다(惟我東方, 舊慕唐風, 文物禮樂, 悉遵其制) > 과 했고 李奎報는 <삼한은 귀퉁이의 작은 땅덩이이지만, 고금에 재인과 현인이 쏟아져서, 중화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중화인도 우리를 소중화라 일컬었다(三韓隈若一微塊, 今古才賢袞袞生, 較之中夏毋多愧, 華人謂我小中華) > 고 말했다.

이 커지고 있었지만 조선에서는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다. 조선에서는 누르하치의 通交요청을 받아들여 1596년 申忠一을 女眞의 본거지인 砮爾朶(建州)로 보내서 살펴보도록 하였다. 그가 귀국한 후에 쓴 상세한 보고서와 관련 지도인 《建州紀程圖記》가 있었지만 조정의 외교정책에는 실질적으로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⁴⁾

정통관념에 사로잡힌 문관들은 새로운 국제질서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국왕인 光海君이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줄타기 외교를 계속했을 뿐이다. 오늘날 한 젊은 학자는 明清교체기에 조선에 易姓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光海君의 애국애족의 역할이 중요했다고도 하였다. 원명교체기에 몰락하는 원나라를 뒤로하고 신흥세력인 명나라 편을 든 이성계 등이 새로운 조선을 건국한 것은 주자학을 신봉하는 정도전과 같은 일군의 신진 사대부그룹이 있었기 때문이었다.⁵⁾

명청 교체기에 조선의 사대부들은 깊은 혼란에 빠졌다. 정신적 지주를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어느 모로 보나 여진족(만주족)의 청나라가 중원의 정통을 이어온 명나라를 대신하여 천하의 주인이 되어 황제로 군림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존왕양이의 춘추대의로 보거나, 중화와 이적을 구분해야 하는 정통의 화이관으로 보거나 만주족의 청나라가 중원을 제패한 현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없었다. 光海君을 쿠데타로 몰아내고 국왕이 된 仁祖는 폐주인 광해군의 실책 중에 명나라를 소홀히 하고 청나라를 인정하는 외교정책을 포함시켰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끝까지 崇明排淸의 외교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다짐하여 결과적으로 신흥세력인 청나라와의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최악의 실책을 범하게 되었다. 당시 반정을 주도한 조정의 대신들은 국제정세에 대한 정확한 인식조차 없었다. 淸太祖(누르하치)는 끝까

4) 申忠一 《建州紀程圖記》의 완본은 成海應의 《研經齋全集》(1840년경, 고려대도서관 소장)에 수록되어 있는데 현대 번역본은 李民奐의 《柵中日錄》번역본(서해문집, 2014)의 부록으로 실려있다. 中文本은 遼寧大學歷史系 《建州紀程圖記、漢譯韃靼漂流記》(淸初史料叢刊第10、12種), 1979에 수록됨.

5) 배우성 《중화와 조선》참조, 돌베개, 2014.

지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조선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려고 애를 썼다. 光海君이 여기에 적절하게 대응한 덕도 있었다. 그러나 인조반정 이후 조선에서 내세운 승명정책은 노골적으로 청나라를 자극하는 것이었다. 淸太宗(홍타이지)은 재위기간에 두 번 조선을 침략했다. 1627년 일어난 정묘호란 때 황해도까지 물밀 듯이 들어온 청군은 강화도에 피난한 인조와 협상을 벌여 「형제지맹」을 맺고 돌아갔다. 조선전기부터 줄곧 조선은 여진의 형님으로서 조공을 받는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 그 역할이 뒤바뀐 것이었다. 1636년 청태종은 마침내 황제로 등극하였다. 축하의식에 참석한 조선의 사신은 천하에 두 명의 황제를 모실 수 없다는 이유로 청태종에게 절하지 않았다.⁶⁾ ‘두 지아비를 섬길 수 없고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⁷⁾는 철저한 이상주의적인 유교사상을 외교 전략에서도 그대로 적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른바 대의명분을 중시한 결과였다. 사신은 죽음을 당하지 않고 돌아왔지만 청태종은 곧 군사를 일으켜 침공했다. 丙子胡亂이었다. 세자와 대신들이 강화도로 피난하고 국왕은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지만 강화도가 점령되고 남한산성도 오래 버티지 못했다. 성내에서는 대신들이 和戰양파로 나뉘어져 극렬하게 논쟁만 거듭했다. 항전을 주장하는 斥和派 측에서는 오랑캐의 부당한 요구에 항복할 수 없다는 논리였고, 主和派는 현실적으로 이길 수 없으니 사직과 백성을 생각하여서라도 항복의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결과적으로 仁祖는 삼전도에 만들어진 수항대에서 치욕적으로 三拜九叩頭의 배례를 행하며 청태종에게 항복을 하고 세자와 왕자 등을 인질로 끌려가도록 허락했지만 조선의 사직은 그대로 존속되고 국왕의 자리도 보전되었다. 이때 청태종은 인조에게 “죽은 목숨을 살려주고 宗祠를 보전해주며 전쟁으로 획득한 바를 돌려주었으니 배풀어준 再造之恩을 유념하라”고 신칙을 내렸다. 이때 실질적인 再造之恩을 받은 조선에서는 임

6) 1736년 청태종의 황제즉위식에 파견된 조선사신은 나덕현과 이확이다. 1727년 정묘호란에 의해 조선과 후금은 형제의 나라가 되었으므로 君臣의 의식은 행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청의 대신들은 조선의 사신을 참하라고 했지만 청태종은 사신을 돌려보내고 전쟁을 준비했다.

7) 사마천 《사기·田單列傳》, “忠臣不事二君, 貞女不更二夫. 齊王不聽吾諫, 故退而耕于野.”

진왜란 때 명나라로부터 받은 再造之恩과 자칫하면 동일선상에서 큰 혼란에 빠질 염려가 있었다. 따라서 조선에서는 문명의 중화와 야만의 이적을 구분하여 尊周攘夷의 춘추대의와 정통관에 따른 華夷구분론을 최대한 내세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던 것이다. 즉 유학 경전의 원칙적 도덕기준을 문제 삼아서 夷狄의 강력한 군사력에 도덕적 우위를 점하여 대항하고자 했던 것이다.⁸⁾

척화를 외치던 三學士는 심양에 끌려가서도 끝내 굽히지 않아 처형되고 나서 조선민중의 영웅이 되었다. 그리고 현실적 방안을 내세운 주화파는 역사의 죄인으로 인식되었다.⁹⁾

조선의 제17대 국왕 孝宗(재위1649-1659)은 형인 昭顯世子와 더불어 瀋陽에서 8년간 인질생활을 했던 鳳林大君이다. 그의 스승이었던 宋時烈은 철저한 주자학자로서 춘추대의에 입각한 역사관을 갖고 치욕을 당한 역사를 되짚기 위하여 10년간 북벌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당시 청나라는 北京을 수도로 정하여 중원전역을 평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을 때였으므로 조선의 조그마한 동태에 대해서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 어쩌면 실질적인 능력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조선의 현실을 파악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孝宗의 북벌계획은 철저하게 宋時烈의 소중화 의식을 배경으로 추진된 것이었다. 中華는 문화적으로 우수한 한족이 중원에서 오랫동안 뛰어난 문명을 가꾸어온 것에 대한 상징적인 호칭이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중화를 존중하였고 그것이 尊周사상, 尊王攘夷, 華夷觀으로 드러난 것이었는데 중화의 대표자인 명나라가 망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이민족인 淸나라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

8) 우경섭 《조선중화주의의 성립과 동아시아》 참조, 유니스토리, 2013 참조/ 김호 <조선 후기의 중화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대보단의 역사적 의의를 중심으로> (《정치와 평론》 9, 2011)

9) 병자호란 당시 조선의 君臣은 북송말기 금나라의 침공이후 靖康之變을 떠올리며 두려워했다. 당시 徽宗과 欽宗을 비롯한 황실 인물과 조정 대신들은 五國城으로 끌려가 갓은 고초를 겪었으며 황제는 그곳에서 사망했다. 조선의 仁祖로서는 스스로 잡혀가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라고 여겼지만 훗날 인질로 잡혀가 8년간 忍苦의 세월을 견디고 돌아온 昭顯세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대적으로 대하여 불행한 결말로 이어졌다. 소현세자는 귀국 후 불과 한 달 만에 急逝하였고 世子嬪과 世孫은 제주도로 귀양보내지고 머지않아 賜死되고 말았으니 국왕의 냉대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으니 이제 중화는 제자리에 있지 않고 조선으로 옮겨와서 그 명맥을 이어간다고 보았다. 중원에서의 중화는 넓고 큰 의미의 문화중심이었지만 이제 문화중심이 조선으로 옮겨왔다고 여겨지므로 또 하나의 中華, 규모가 작은 小中華라고 이름 지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순수한 의미의 중화라기보다 중화라는 이름으로 드러난 민족주의에 다름 아니다. 조선의 중화주의는 곧 朝鮮의 자주적인 民族主義라고도 할 수 있다. 조선은 지리적으로 분명 중원의 변방에 자리잡은 東夷의 민족이지만 역사상 중국의 한쪽이 이룩한 문화를 거의 모두 수용하고 더욱 발전시켜서 다른 이민족들과 동일선상에서 논할 수 없는 위상을 정립했다는 의미다. 송시열의 북벌론은 북쪽의 만주족 나라인 淸나라를 정벌하려는 실제적인 북벌이라기보다는 국내적으로 淸에 대한 복수의식을 강조하면서 흠어진 민심을 바로잡고 自強不息의 생로를 모색하는 하나의 슬로건(口號)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나라와의 실질적인 접전은 없었고 오히려 청나라의 요청에 따른 러시아(羅禪)정벌의 계기로 두 차례 북방으로 출병하게 되었던 것이다.¹⁰⁾

하지만 宋時烈의 이 같은 조선중화주의의 사상적 기치는 조선후기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조선후기 존화양이의 이론을 대표하는 상징물은 大報壇과 萬東廟, 朝宗岩 등이었다. 大報壇은 숙종30년(1704)에 창덕궁에 지어서 명나라의 태조(홍무제)와 신종(만력제), 의종(승정제)을 제사지내던 사당이다. 임진왜란을 막아 조선을 다시 살려준 再造之恩에 보답하려는 유생들의 청원으로 이 대보단이 만들어졌다. 이때는 임진왜란 발발이후 100여년이나 지났지만 조선후기의 소중화 사상에 의하여 숭명의식이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여 유신들의 강력한 요청을 따르게 된 것이었다. 1884년 개화파에 의한 갑신정변이후 제사는 중단되었다. 萬東廟도 이 시기(1703)에 만들어졌다. 송시열은 1689년에 사약을 받고 죽었지만 유언으로 명나라 신

10) 당시 친청파인 金自點과 조선출신 통역관 鄭命壽 등에 의해 조선의 북벌계획은 청나라에 알려졌으나 실질적으로 청나라를 공격하는 북벌은 진행되지 못하고 오히려 청의 요청에 의하여 松花江유역으로 南下하는 러시아(羅禪)군대를 막아내는 작전(나선정벌, 중국명 雅克薩戰役, 1654, 1658)에 군사력을 활용하였다.

종과 의종의 사당을 세워줄 것을 요청하여 권상하(1641-1721)를 비롯한 제자들이 괴산 華陽洞에 만동묘를 창건하여 제사를 지냈다. 이에 앞서 북경으로 사신을 갔던 민정중이 승정제(의종)의 친필인 ‘非禮不動’의 글씨를 얻어다 송시열에게 주어 이를 화양동 절벽에 새겨 두었다. 萬東廟의 이름은 경기도 가평의 朝宗岩에 새겨진 선조의 어필인 ‘萬折必東’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송시열의 학문적 전통을 따르는 화서학파는 이곳을 정신적 본산으로 삼고 춘추대의와 위정척사의 사상을 이끌며 조선말기의 소중화 사상을 견지하였다. 朝宗岩은 숙종10년(1684)에 가평군수 李齊斗 등이 만력제의 어필인 ‘思無邪’와 선조의 어필인 ‘萬折必東, 再造藩邦’ 등의 글자를 새긴 바위에 명명한 이름이다. 1831년 다시 사당을 세우고 大統廟로 명명하였다. 華西학파의 金平默, 柳重教 등이 이 근처에 집단 이주하여 崇明排淸의 입장에서 춘추의리를 강학하면서 위세를 떨치게 되었다.¹¹⁾

조선유학계에서는 孔子와 朱子에 이어서 宋時烈을 宋子로 추앙하며 관념적이고 이상적인 朱子學의 이념을 더욱 강화시켰다. 국가의 미래와 국제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려는 현실인식은 발붙일 곳이 없어졌다. 광대한 중원 전역을 차지한 청나라는 조선의 종주국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조선의 안보를 위협하지는 않았다. 18세기에 이르러 세계 최강의 국력과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康乾성세[강희연간에서 건륭연간까지]를 지나면서 사절단으로 燕京(북경)을 다녀온 젊은 지식인 사이에서는 北學을 배워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이 확대되었다. 洪大容에서 朴齊家, 朴趾源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발달된 문화의 현장을 직접 보고 배운 바를 조선에 알리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의 머릿속에도 여전히 만주족 자체에 대한 거부감은 없지 않았다. 北京에서 만난 漢族들에게 왜 오랑캐의 복식과 髮形(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는가 꼬집어 보고, 송명대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는 연극에서 한족의 복식을 한껏 뽐내는 장면을 무대 아래서 바라보는 한족 선비들에게 지금의 느낌이 어떠한가를 노

11) 萬折必東은 《荀子》에 나오는 구절로 ‘大江雖萬折, 必東流入海’(큰 강물은 만번 굽어도 끝내 동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의 뜻에서 취했다고 한다. 華夷는 변함없고 春秋大義는 영원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하겠다.

골적으로 물어보기도 하였던 것이다. 조선 문인들의 중화의식은 이미 뿌리가 깊게 내려있었다. 조선문인의 燕行錄에는 만주족에 대한 묘사가 적고 어찌다 나오더라도 대부분 중시하지 않고 있으며 북경에서 만나는 한족문인, 혹은 남방출신의 문인과의 교류에 더욱 적극적이었다. 연행사절단은 명나라의 복식이 연극무대에서나 겨우 나타나는 현상을 풍자하면서 중화의 예복이 市井의 胡人(만주족)들에게 놀이거리로 삼게 되었으니 슬프다고 언급하고 있다.¹²⁾

이러한 상황은 조선 문인들의 중국 표류기록 속에서도 나타난다. 중국의 南方해안으로 표류하였다가 구조되어 福建이나 浙江을 경유하여 京杭운하로 송환되는 도중 중국문인들과 필담을 나누었던 조선의 문인들도 연행사절단이 품고 있었던 의문을 여전히 갖고 있었다. 한족 문인들과의 필담을 통한 교류에서 한족으로서 오랑캐의 복식을 하고 있는 것이 심정적으로 어떠한가를 꼬집어 묻기도 하고 망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야유하는 등 조선에서 중화의 순수한 전통을 견실하게 보존하고 있어 조선이 소중화의 나라임을 중국인 앞에 드러낸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조선 成宗19년(明 弘治원년, 1488)에 중국 절강성에 표착하였던 崔溥는 조선의 고위관리로서 중국 관원을 대할 때 동방예의지국의 사람임을 잊지 않고 威儀를 갖추고자 하였고 조선이 예의와 오륜을 숭상하며 儒術을 존중하는 나라임을 강조하였다. 최부는 당시 父親상중이었으므로 철저히 《주자가례》의 따르며 예를 지키고 있었다. 명나라 선비들에게 조선인의 모범적인 예절을 보여준 경우였다. 正祖20년(淸 嘉慶원년, 1796)에 표류하여 대만 澎湖에 표착한 이후 대만, 복건, 절강을 거쳐 귀국길에 오른 李邦翼은 廈門의 紫陽書院을 지나게 되자 선뜻 들어가 참배하여 조선인의 유학존중과 예의숭상의 실상을 보여주어 현지 유생들의 칭송을 받았다. 이보다 20여년 지나 純祖18년(嘉慶 23년, 1818)에 절강성 定海縣에 표착한 崔斗燦은 항주의 문인들 앞에서 명칭

12) 崔德中 《燕行錄》“至永平府，……適設戲子之具，三使臣同會一室暫見，而其法如我東俳優之戲，色色改服，服皆明宋朝服軍服，而象形水滸傳與奇奇怪怪事。不過未知話音，亦不知意味，不足可觀，還可笑也。而中華之禮服及作市胡弄玩之資，痛哉痛哉”，《國譯燕行錄選集》제3권，原文109頁)

의 문화를 비교하면서 한족으로서 이민족의 치하에 살고 있는 치욕을 동정하여 조선인의 崇明排淸의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두찬도 19세기의 조선에서 '소중화'의식을 품고 있었던 전형적인 전통문인이었던 것이다.¹³⁾

3. 李恒老의 衛正斥邪상소와 柳麟錫의 義兵활동

숙종이후의 춘추대의 사상은 사실 병자호란 직후 청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복수의식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청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복수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좀 더 근본적인 이념정립이 필요한 시점이었던 것이다. 淸교체이후 조선에서는 표면적으로 청나라에 조공하며 事大하고 있었으나 유학자들은 조선이 보편적 중화문명을 수립하여 명나라의 문화 전통을 이어간다는 이상적 개념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전통은 19세기에 이르러 주자학자 李恒老에게 직접 이어졌다. 高宗이 즉위한 이후 서양세력의 출현은 조선에 커다란 위협이 되었다. 이 시기에 夷狄의 민족은 청나라가 아니라 西洋세력이었고 또 서양을 등에 업고 호시탐탐 조선을 엿보는 日本세력이었다. 왜양일체론을 내세우며 이들의 침략에 대한 경계심은 이적의 단계에서 금수의 단계로 더욱 강화되었다. 李恒老는 서양의 함대가 조선변경에 쳐들어오자 존왕양이의 춘추대의를 기준으로 내세우고 외세와의 타협을 경계하면서 위정척사를 강하게 주장하였다. 그는 직접 국왕에게 상소문을 올려서 외세의 침입에 굴복하지 말고 타협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大院君은 그의 의견을 받아들여 외세를 배척하는 정책으로 전

13) 丁晨楠, <十九世紀初東亞漂海錄《乘槎錄》的編纂與版本> (《域外漢籍研究集刊》 제13집, 204쪽, 2016.5), Choe Yongchul, <Shipwrecked: Stranded in East Asian Waters in the Joseon/Qing Era> 2015 고려대-버클리대 크로스커피츠 포럼 발표문, 2015.6. 崔斗燦의 《乘槎錄》에는 중국 강남에서 홍무제의 후손이라고 하는 朱氏를 만나 망국의 백성으로 사는 느낌이 어떠냐고 풍자하면서 조선의 중화의식을 드러내는 대목이 있음.

국에 斥和碑를 세우고 외세에 대항했다. 척화는 병자호란에서 이적과는 어떠한 협상과 화해도 있을 수 없다는 척화파의 강경한 논리를 이어받은 것이었다. 조선후기에 이들 척화파의 신하들은 애국 열사로서 대보단에서 제향을 받으며 줄곧 추앙을 받았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서양문명을 받아들여 明治維新에 성공한 이후 조선의 개항을 압박하였다. 주자학적인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던 조선의 유학자들은 일본과 서양의 세력을 동일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倭洋일체론을 부르짖으며 19세기말부터 본격화된 일본의 조선 진출에 衛正斥邪의 방침으로 대항했다.

17세기 효종 때 宋時烈에 의해 주도된 북벌계획은 무산되었지만 그 정신적인 기반이 되었던 조선의 중화주의는 오랫동안 조선지식인을 사로잡은 도그마(信念)로 작용하였다. 송시열은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가 대신함에 따라 중국문화의 정통이 끊어졌으며 그 명맥은 조선에서 잇게 되었다고 보았다. 이른바 중화조선이란 문화민족국가로서의 조선을 말하는 것이었다. 18세기에 조선의 선비들은 연행을 통하여 康乾성세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청나라의 문화를 새롭게 평가해야 한다는 자각이 일어났다. 北學派 지식인들은 청나라의 발달된 문화를 받아들여 조선의 낙후된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청나라를 지배하는 만주족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족과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중원을 차지하고 있는 청나라 정권과 중화문화로서 발달하고 있는 청나라의 문화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북학론의 주장은 사실 효종대의 북벌론을 뒤집어서 생각해본 것이었다. 북벌론에서의 조선중화론은 우리나라는 분명 이적의 땅에 위치해 있지만 중화의 정통을 이어가는 문화를 가졌다는 입장이고, 북학론에서는 청나라가 만주족 정권이지만 중화의 문화를 일으키고 발전시키고 있으니 정권과 문화를 분리하여 배울 것은 배우자는 주장이었다.¹⁴⁾

19세기 후기에 이르면 서양과 일본이라는 외세의 직접적인 위협이 시작되

14) 허태용 《조선후기 중화론과 역사인식》 81쪽과 92쪽 참조. 홍대용의 華夷一也의 언급에서 중화와 이적의 구분을 유동적으로 상정하고, 문화적 화이관의 전개로 청나라와 청나라가 보유한 문화 및 문물을 구분한다는 것이었다.

었다. 중국은 만주족의 청나라가 되었으므로 직접적으로 의지할만하지 못했지만 중국 성리학의 정통관념 속에서 조선의 위기를 구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주자학을 신봉하는 조선의 사대부들은 송시열이 강조하였던 존왕양이의 춘추대의와 명분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외세의 침략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李恒老는 그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다. 尊王攘夷의 사상으로 임금을 보위하고 오랑캐에 해당하는 서양의 외세를 막고자 하였으며 국가의 정통을 보위하고 사악한 서양과 일본을 배척한다는 衛正斥邪를 주장하였다. 이항로의 사상은 고종즉위이후 대원군에게 채택되어 외세를 막아내기 위해 강력한 쇄국정책을 쓰게 되었다. 李恒老의 위정척사의 사상은 柳重教와 柳麟錫, 崔益鉉 등에게 직접적으로 전수되었다.

존왕양이와 화이론의 이론만으로 직접적인 외세의 침략에 대항할 수 없게 되자, 이항로의 제자들은 위정척사의 기치를 내걸고 항일의병을 일으켰다. 19세기 후반의 유인석과 최익현 등이 바로 대표적 인물이었다. 당시 국제정세는 다급하게 변화되었고 조선의 정세는 누란의 위기에 빠져들게 되었다. 유종교는 스승의 가르침을 전수하기 위하여 제천에 자양서사를 짓고 강학을 시작하였다. 그의 사후 유인석이 이를 이어받아 자양영당으로 고치고 춘추대의와 성리학적 명분론, 화이정통론을 강의하였다. 유인석은 1895년 민비시해와 단발령의 실시에 강력 반발하여 전국의 유림에게 <檄告八道列邑>의 격문을 발송하였다. 이 격문에 의해 유인석은 제천의 자양영당에 전국유생들을 모아 주자가례에 따라 강습회와 향음례¹⁵⁾를 시행하고 곧이어 항일의병을 일으킬 것을 제안〔倡義〕하여 湖西義兵의 의병장으로서 항일투쟁을 적극 주도하였다. 한때 충주성을 함락하고 제천, 단양, 영월 지역을 장악하여 의병의 기세를 떨쳤다. 湖西의병은 구한말의 의병활동 중에서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조정의

15) 鄉飲禮는 주나라의 향학에서 덕행과 도예에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왕에게 추천하면서 벼꾼 연회에서 유래하지만, 유학의 전통에서 공동체의식과 도덕의식의 양양을 위해 적극 추진되었다. 柳麟錫은 1895년 음력 윤5월 2일과 3일에 대규모 강습례와 향음례를 개최하여 유생들의 결속을 다지고 항일의병을 기획하게 된다. 이때 남긴 기록이 《長潭講錄》(강원대 소장)이다.

관군과 일본군의 공격에 패하여 여건이 여의치 않자 유인석은 무리를 이끌고 間島와 沿海洲¹⁶⁾ 등지로 망명하여 항일의병의 명맥을 계속 이어나갔다. 유인석은 연해주 의병의 창의대장이었고 이때 연해주의 의병 요원이었던 安重根과 禹德淳이 伊藤博文의 하얼빈 방문기회를 이용하여 저격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¹⁷⁾ 하얼빈(哈爾濱)역에서 안중근의 저격이 성공함에 따라 항일의병의 사기를 최고조로 높일 수 있었다. 중국에서도 조선인의 항일 의기를 진정으로 기뻐하고 존중했다.

이항로의 또 다른 제자였던 崔益鉉은 상소를 통해 衛正斥邪의 실천을 강력히 요청하다가 파직되어 제주도로 유배되었고 1905년 乙巳勒約(을사보호조약)체결이후 항일의병을 일으켰다가 체포되어 쓰시마(對馬島)에 유배되고 끝내 옥사했다. 柳麟錫은 이항로의 기획에 의해 柳重教와 金平默이 편찬한 《宋元華東史合編綱目》을 춘천에서 마침내 간행하고 당시 對馬島로 사람을 보내 崔益鉉의 생전에 <跋文>을 받아 책의 말미에 넣었다. 19세기 조선의 정통 주자학자로서 춘추대의를 신봉하던 화서학파의 마지막 계승자였던 柳麟錫은 의병활동을 통하여 위정척사의 이론을 실천하고자 하였고 《화동강목》의 출판으로 이론적 근거를 후세에 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16) 間島는 중국동북지역, 본래 청나라와 조선국경 사이에 놓인 封禁지역으로 無人空間지대, 후에 조선이민자들이 들어가서 개척하면서 墾島라고도 하였음, 오늘날 中國 延邊의 조선족자치주 지역. 서간도는 압록강 상류의 백두산지역, 동간도 혹은 북간도는 두만강 북부 지역을 말함. 沿海洲는 러시아극동지역, Primorskiy지방의 意譯, 블라디보스톡이 곧 州都임

17) 柳麟錫이 堤川에서 湖西의병활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沿海洲로 건너가 의병활동을 주도하고 안중근의 하얼빈 파견에도 일정 정도 관련을 가졌을 것이라는 주장은 최근 鄭禹澤 교수의 논문 등에서 확인된다. 鄭禹澤 <연해주 한국의병 倡義大將, 毅庵 柳麟錫 - 창의대장 金斗星은 柳麟錫과 동일인>, 《毅庵學研究》 제11호, (社)毅庵學會, 2014年, 87~92쪽. 鄭禹澤 <안중근의사의 독립운동과 毅庵 柳麟錫관련연구 - 안중근의 연해주의병 활동과 하얼빈의거를 중심으로>, 《2015년 화서학회 학술대회 발표문》, 25-61쪽, 2015.10.

4. 《宋元華東史合編綱目》의 편찬과 간행의 의미

柳麟錫은 이항로의 주자학적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아 유생들에게 강학을 진행하는 한편 외세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조정에 상소를 올리고 급기야 일본에 의한 민비시해의 만행과 개화파의 단발령이 시행되자 위정척사의 실천을 위하여 전국유생을 모아 의병을 일으켜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국내에 이어 해외에서의 항일운동을 전개하던 도중 귀국한 유인석은 이항로 생전의 과업으로 완성된 《宋元華東史合編綱目》을 간행하기 위해 마지막 역량을 경주하였다.

李恒老는 1852년 자신의 사상적 배경인 춘추대의와 존왕양이의 사상을 역사서 저술을 통해 실천하기 위하여 제자인 柳重敎에게 중국 宋元의 역사와 우리나라 高麗의 역사를 합편하여 강목체로 기술할 것을 지시하였다. 유중교는 1852년부터 1862년까지 10년 이상 심혈을 기울여서 宋太祖의 건국(960년)에서부터 元世祖 25년(1288년)까지의 328년간의 역사기술을 마쳤다. 하지만 고려 말에 이르러 자신의 조상 중에 이민족인 원나라에 고려를 속국으로 삼고 하는 이른바 立省策動을 주동한 柳淸臣(생년미상-1329)의 행적을 발견하여 더 이상 저술을 못하고 중단하고 말았다.¹⁸⁾

이는 자손으로서 조상의 욕된 사실을 직접 거론할 수 없는 유교적 예교사상 때문이었으나 또한 화서학파의 사제들이 공동으로 《화동강목》을 저술하려는 의도와도 배치되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민족의 정통성을 거절하고 대의명

18) 立省策動이란 고려후기에 親元派 신하들에 의해 高麗國을 원나라 직속령의 行省(行中書省)으로 삼자는 주장이었다. 大都(北京)에 체류하던 親元派 신하들이 주장한 이 책동은 忠宣王 復位1년(1309) 이후 약 40년간에 걸쳐 수차례 일어났고 왕위계승문제와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고려의 정체성을 잃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맹렬한 반대에 부딪쳐 실행되지 않았다. 柳重敎의 先祖인 柳淸臣은 제2차 立省책동(1323)에 적극 참여하였는데 원나라 通事舍人 王觀이 승상에게 상소하여 고려는 풍토와 습속이 다르고 전장제도의 차이가 있어서 억지로 통합을 하면 오히려 격렬한 저항에 부딪치고 우환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서 부당함을 역설하여 이 주장은 폐기되었다.

분을 내세우며 조선의 중화 정통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었는데 이에 모순되는 사안이 자신의 조상에게서 발견되자 유증교는 붓을 놓게 되었던 것이다. 1863년 李恒老로부터 나머지 부분의 역사기술을 명받은 金平默은 1288년 이후 원나라 말년(1367년)까지 73년간의 역사를 마무리하였다. 이로써 송나라와 원나라를 잇는 408년간의 역사를 주자의 강목체로 만들어낸 것이다.¹⁹⁾

朱子の 《通鑑綱目》에는 先秦시대부터 唐五代까지의 역사적 사실이 綱目體의 형식으로 기록되었다. 주자의 역사관은 역사의 정통을 중시하고 尊周大義를 드러내며 華夷를 분명하게 구별하는 입장이었다. 孔子가 《春秋》에서 보여준 尊王攘夷의 사상은 바로 조선 문인들에게 그대로 이어진 尊周大義의 기본 요체였다. 朱子는 《三國志》의 魏나라 정통을 고쳐 劉備의 蜀漢을 정통으로 서술하였고 중원을 지켜온 漢族의 정권을 정통으로 인정하여 설사 중원의 땅을 차지하였더라도 夷狄의 정권을 정통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華夷를 분명히 구분하였던 것이다.

宋時烈的 소중화사상은 정통 주자학의 관점을 그대로 따른 것이고 李恒老는 위정척사로 그러한 관점을 지속시켰다. 따라서 《華東綱目》은 宋元의 역사를 존왕양이와 화이구분의 방식으로 기록하는 것이고 이와 동시에 宋元代와 중첩되는 高麗시대의 역사를 여기에 대조하여 합편한 것이다. 조선후기 확고하게 자리 잡은 李恒老의 사상은 《華東綱目》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朱子는 《통감강목》에서 송나라이전까지의 역사를 다루었으므로 李恒老는 이를 이어서 송나라와 원나라의 역사를 밝히면서 분명하게 역사의 정통을 세우고자 했던 것이다. 중국과 한국의 역사를 함께 쓰는 것은 한국사학사에서 거의 유일한 예에 속하는 독특한 방식이다. 조선의 문인으로서 주체적이고 민족적인 입장에서 조선의 중화사상을 보여주려는 심오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19) 김평묵이 기술한 고려 柳淸臣의 立省論 관련기록은 다음과 같다. 元英宗至治3年, 高麗忠肅王10年(1323): [綱] 高麗僉議政丞柳淸臣、贊成事吳祜等上書都省, 請立省於其國, 不許. [目](前略)元通事舍人王觀上書丞相略曰 (中略) 本國去京師數千里之遠, 風土旣殊, 習俗亦異, 刑罰爵賞婚姻獄訟與中國不動, 今以中國之法治之, 必有扞格枝梧, 不勝之患, 其不可二也.(下略) 여기서 都省은 中書省이며 吳祜는 吳潛의 초명인데 《華東綱目》에서는 吳祜로 쓰고 있지만 《高麗史》에서는 吳潛으로 썼다.

할 수 있다.

《송원화동사합편강목》은 본문 29권, 부록 4권으로 도합 33권으로 이루어졌다. 부록으로는 유중교의 <書法>과 <附柳重教修史稟目>, 김평묵의 <發明> 및 유중교의 <正統論>이 실려 있다. 이 중에서 <서법>과 <발명>에서 이 책의 편찬방향 및 서술방침 및 역사인식에 관하여 밝히고 <附柳重教修史稟目>은 유중교의 질문에 김평묵이 답한 내용이며, <정통론>은 이항로의 주자학적 정통론에 근거하여 華夷論을 천명한 것이었다.

본문은 1852년부터 1864년 사이에 완성되었고, 부록은 1879년에 쓰여졌다. 그 사이에 그들의 스승인 이항로는 타계하였고(1868), 그 후 수년간 스승의 가르침과 말씀을 모아서 문집 《華西雅言》(12권3책)의 편찬하는데 힘을 기울여 1874년에 간행하였다. 그중 卷12의 異端과 洋禍 등의 항목에서 이단의 학문적 폐단과 서양 사교의 피해에 대해서 화서학파의 평소 주장을 밝히고 있다. 1876년 화서학파의 유생들은 집단으로 상경하여 개항에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리는 등 현실참여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후에 金平默은 상소문의 내용으로 인하여 낙도인 智島로 유배를 갔다가 양평으로 돌아와 은거하게 되었고 柳重教는 춘천 柯亭에서 1889년 제천 長潭으로 옮겨 자양서사를 개설하고 유생들에게 강학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1891년 김평묵이 사망하고 1893년에 유중교도 사망하자 柳麟錫이 자양서사를 이어받아 스승의 영정을 모시고 자양영당으로 개칭하면서 전국의 유생들에게 격문을 보내 마침내 의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유인석은 1895년의 乙未의병운동으로 크게 이름을 떨쳤으나 궁극적으로는 실패하여 해외로 떠돌게 됨에 따라 이미 저술이 완료된 《화동강목》은 시종 간행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1903년 崔益鉉은 스승인 이항로 추모 사업을 일으키며 《화동강목》의 간행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게 되었다. 그러나 崔益鉉도 1904년 친일대신을 규탄하는 상소를 올리고 高宗의 밀지를 받아 의병을 일으켰다가 對馬島로 압송되는 바람에 《화동강목》의 간행문제는 또다시 미루어지게 되었다. 1906년 마침내 柳麟錫이 나서서 이 막중한 과업을 시작하였다. 춘천 가정리에 柯亭書社를 개설하고 판각작업에 들어

가 柳濟遠의 글씨를 받아 1907년 5월에 마침내 완성하였다. 그 후 판목은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는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절반 남은 판목이 제천의 자양영당으로 옮겨 보관되었다. 현재 전체 3311장 중에서 1578장이 남아있다.

柳麟錫은 최종 간행에 앞서 스스로 편찬 동기와 간행목적에 밝히는 序文을 쓰고 대마도에 유배 중이던 崔益鉉에게 사람을 보내 발문을 받아내고 또 柳重岳과 자신의 발문도 포함하여 함께 실어 마침내 스승 이항로의 염원을 50년 만에 완성시켜 《화동강목》 간행의 대업을 마무리하였다.

여기서 《화동강목》의 텍스트 來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華東綱目》은 기본적으로 송원대의 중국역사와 같은 시기 고려사의 주요 사건을 월별로 동시에 보여주는 합편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본문에 들어가는 송원대의 역사는 명나라 商輅의 《宋元通鑑綱目》의 내용을 활용하였다. 商輅의 책은 朱子の 《자치통감강목》에서 唐五代까지 기록한 것을 뒤이어 서술하였기 때문에 《송원통감강목》이라고 이름 한 것인데 보통 《통감강목속편》 혹은 《속자치통감강목》으로 불리고 약칭 《속강목》이라고도 한다. 강목체의 형식으로 만든 역사인데다 송원시대를 그대로 담고 있으니 이항로의 편찬의도에 가장 부합한 기본 자료라고 할 수 있다.²⁰⁾

李恒老는 고려시대 역사기술의 저본은 俞樾의 《麗史提綱》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俞樾(1607-1664)는 호를 市南이라고 하며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병자호란 때 척화를 주장하였다가 유배당한 바 있다. 학문에 전념하여 《주자가례》를 기본으로 하여 《가례원류》를 새로 지었고 말년에 朱子の 《자치통감강목》을 본받아 강목체의 《麗史提綱》을 지었다. 이 책에는 宋時烈的 서문이 실려 있으며 주자학을 중심으로 하는 송시열의 역사관을 반영하는 저술이었다. 현종8년(1667)에 간행되었다. 이 책이 근 2백 년 만에 다시 유종교와 김

20) 조선에서는 《續資治通鑑綱目》의 이름으로 간행되고 판심에 《續綱目》으로 쓰고 있으며 27권이다. 成宗연간이후 여러 차례 금속활자로 간행되었고(甲寅字本, 韓構字本) 목판본도 다수 있다. 연산군(1503)이 간행하라고 명했다는 기록도 있다. 서명은 《續資治通鑑綱目》, 商輅奉勅纂修, 周德恭發明, 張時泰廣義로 되어 있고 전27권28책본, 전27권51책본, 전42책본 등이 있다. 고려대 晚松문고, 華山문고 등에 殘本소장.

평목에 의해 《화동강목》의 저술에 활용된 것이다.

《화동강목》에서 이상 두 종의 韓中역사서를 이용하고 있으나, 《속강목》에서는 夷狄의 정권이었던 원나라를 정통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華夷구분의 正統觀을 지켜야 하는 春秋義理의 정신에 어긋났다고 보고 이를 고쳐야 한다고 보았다. 李恒老는 《속강목》의 원나라 정통관을 수정하고, 또 조선에서 중화문명을 이어가고 있다는 자존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華東合編의 역사책을 새로 편찬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화동강목》은 두 나라의 역사를 같은 年月에 맞춰 주요 사건을 대조하여 나열하였으나 단순하게 옮기지 않고 자신들의 화이관에 맞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역사사건에 대해 취사선택을 하였다. 기존의 저본에서 춘추필법에 맞지 않는 경우는 자신들의 입장에 맞도록 고치고 선별하였던 것이다. 주로 송나라와 고려의 관계, 송대 이학의 대표인 程顥와 程頤, 朱熹 등의 인물에 대한 기록이 많고 이적과의 전쟁이나 배척에 관한 기사가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

高麗史의 경우에는 儒教에 관련된 사항이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며 민족적 주체성과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거나 확대보충하고 있다. 《화동강목》의 첫대목(송태조 建隆원년, 960)에 고려(광종11)에서 일어난 일로 “高麗定百官公服從華夏之制”를 綱으로 뽑아서 제시하고 있으니 이로써 마침내 중화문화를 고려에서 본격적으로 수용하여 결국 소중화의 나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었다. 이 책의 마지막 원나라 말년(1367)에서도 명태조의 활약을 드러내서 “我太祖皇帝兵討方國珍降之”를 綱으로 삼고, 유교적 절의를 드러냈던 鄭夢周를 성균관 박사로 삼았다는 사실을 드러내어 “十二月高麗以鄭夢周爲成均博士”로 기록하고 있다.²¹⁾ 또한 고려사에서 尹瓘의 女眞정벌이나 蒙古와의 항전 등을 내세워 이민족에 대한

21) 이상 《華東綱目》의 원문은 《宋元華東史合編綱目》 영인본(상하권, 내제문화연구원, 1998)에서 인용하였음. 《화동강목》은 1907년 간행이 완료되었으나 규장각에 고서원본이 희귀본으로 남아있고 1976년 宇鍾社에서 影印本을 냈으나 또한 절판되었다. 제천 봉양의 자양영당에는 간행 당시의 판본이 남아있으나 전체의 절반 분량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제천의 향토문화를 연구하는 奈堤文化研究會는 柳重敦의 後孫으로부터 구한 희귀본을 기증받아 이를 1998년에 상하2권으로 影印간행하여 널리 배포하였다.

고려의 위상을 최대한 높이고자 했으며 조선 太祖의 업적 등에도 깊은 관심을 드러내어 조선의 문화전통과 대의명분 및 의리정신을 강조하였다. 결국 중화를 강조하면서 민족의 자존심을 일으키고자 한 것이었다.

《화동강목》의 편자들은 이상 두 종의 史書이외에도 중국사에서 《송원통감》, 《송명신록》(즉 송명신언행록) 등과 한국사에서 《동국통감》, 《동사찬요》 등의 책을 참고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宋元通鑑》은 명나라 薛應旂의 저술이며, 《宋名臣言行錄》은 명대 수정본을 조선에서 간행한 62권 20책본인데 송시열의 발문이 있는 책이다. 《동국통감》은 徐居正 등이 만든 통사로서 유교적 명분론에 입각한 사서로서 이단에 강한 비판을 보인 책이다. 《東史纂要》는 吳澐이 지은 편년체 사서로서 단군에서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다루었는데 임진왜란이후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목적에서 만든 책이다.

이처럼 《화동강목》의 편자는 자신의 사상적 배경과 저술목적에 걸맞는 사서를 대량으로 수집하여 이를 종합하면서 자신들의 견해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들은 역사를 통해 신봉하는 사상을 드러내고자 했으며 또한 외세를 막아내고 민족적 자존심을 지키려는 의지는 의병활동을 통해서 실천하고자 했다. 당시 실천하는 지식인의 전범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華東綱目》은 《續綱目》과 《麗史提綱》을 저본으로 활용하여 정통과 대의의 설정, 유교적 예제의 확립, 절의와 명분의 실행, 유학자의 업적, 어진 군주의 즉위와 유능한 신하의 등용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독특한 사론을 추가하여 자신들의 사상적 입장을 최대한 표명하였다. 또한 유교적 명분에 어긋난 사건이나 불교와 같은 이단을 비판하고 특히 역사상 난신적자에 대한 통렬한 비난을 서슴없이 진행하였다. 이민족에 의한 중원 침략이나 이민족의 문화를 공략하면서 외세에 저항할 것을 촉구하는 등 대의명분의 정통론에 입각한 화이관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화동강목》은 주자의 《통감강목》의 선례를 최대한 참고하여 송원시기 역사 정통의 체제를 확립하였다. 《통감강목》에서는 우선 正統과 無統이 있고 列國, 篡賊, 建國, 僭國, 不成君, 遠方小國으로 나누었으며 정통으로는 周,

秦、漢、晉、隋、唐을 세우고 三國에서는 蜀漢을 정통에 넣고 魏와 吳를 僭國으로 정했다. 晉과 隋 사이의 혼란스러운 남북조와 唐이후의 오대는 無統으로 처리했다.

《화동강목》의 서법에서도 주자의 방식을 원용하여 정통과 무통으로 나누고 宋나라만을 정통으로, 元나라 단독시기를 無統으로 처리하였으며, 蠻夷君長을 따로 두어 송나라와 같은 시기의 遼, 金, 元을 이에 배치하였다. 이는 화서 학파에서 이적의 국가를 정통이나 열국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개발한 새로운 방안의 하나였다. 宋元 408년 동안 정통으로 분류한 나라는 송나라의 313년 간 뿐이다. 《속강목》에서는 원나라를 정통으로 처리하였지만 《화동강목》에서는 方孝孺와 宋時烈 등의 역사관에 따라 원나라를 無統例에 배치한 것이다. 고려는 비록 중국에서 보면 외국이지만 중화문명에 근접하였고 또 本國의 역사(조선의 고대사)를 편찬하는데 목적이 있었으므로 특별히 列國例로 서술하였다. 원말 朱元璋이 吳王에 즉위할 시기의 다른 五國은 建國例로 하였다. 그러나 夷狄으로서 중원에 들어와 있는 나라로 西夏는 비록 당초부터 있었지만 僭國例로 처리했고 金이 燕京에 들어온 이후와 蒙古가 燕京에 들어온 이후의 경우도 僭國禮로 보았다. 遠方小國으로 처리한 것은 大理國, 眞臘國(감보디아) 등이다. 원나라의 통일이후부터 명 태조(朱元璋)의 起兵(1355)이전까지를 干統이라고 부르며 중국의 진정한 주인이 없었던 시대인 無統으로 처리하고 있다. 특히 淮水이북을 차지한 적이 없었던 遼에게는 시종 蠻夷君長例를 적용하고, 金이 燕京에 도읍한 이후에는 僭國例를 쓰며 호칭도 金主, 元主로 표기하고 죽음도 卒이라고 표기했다. 干統期の 元나라 때는 無統의 特例를 쓰고 군주의 호칭은 그냥 主라고만 하다가 明太祖 起兵이후에는 元主라는 서법을 채택했다. 존화양이의 이론이 철저하게 적용된 것이었다. 이러한 역사관은 조선후기에 만주족의 淸나라와 日本과 西洋의 침략에 대항하는 華西學派의 정통관과 화이관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화동강목》에서는 또 역사상 국왕이나 왕후에 대한 시해의 변은 숨김없이 직서한다고 하였고 나라를 찬탈한 경우에도 전례에 따라 반드시 주모자를 기

록하였다. 시해나 찬탈의 변란에 대해 토벌하고 복수하는 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러내어 칭송하고 비록 실패하였더라도 이를 기록으로 남겨 난신적자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러한 역사관은 당시 화서학파에서 외세침략의 역사의 현장에 직접 나서서 상소문을 올리고 의병을 일으켜 衛正斥邪의 실천정신과 일치하는 것이다.²²⁾

실제로 柳麟錫의 서문과 柳重岳의 발문에서 모두 南明의 연호인 永曆을 사용하고 있는 점은 화서학파의 崇禎排淸의 전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안이다. 序文의 末尾에는 “永曆五丙午秋七月十五日三先生文人高興柳麟錫謹書”로 되어 있는데 즉 永曆(1647-1662)이후 병오년(1666)으로부터 네 번의 60년이 지나고(240년) 다섯 번째 맞이하는 병오년(1906)을 뜻하는 것이다. 유중약의 跋文에서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永曆二百六十一年丁未三月中休日高興柳重岳謹書”로 썼는데 永曆원년인 1647년으로부터 261년째 되는 1907년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조선후기 대부분의 조선 문인들이 崇禎연호를 쓰던 것과 달리 굳이 南明의 연호를 쓴 것은 明나라의 正統에서 朝鮮으로 이어지는 中華의식의 맥락을 드러내려는 華西학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西洋세력이 물밀 듯이 들어오는 근대시기에 동아시아의 오래된 국가들은 새 시대의 좌표를 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고심을 거듭하였다. 서양의 외래문화를 적극 받아들여 자국의 발전을 꾀하려고 했던 개화파들은 나름대로 노력하였지만 스스로의 힘을 기르지 못한 상황에서 결국 식민지의 길로 빠지게 되었다. 한편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하면 이적의 노예로 전락한다고 우려하면서 동양 전통의 성리학적 질서를 굳건히 지키고자 했던 보수파들도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당시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민족문화의 전통을 지키고 동양의 정신적 지주

22) 이상 《華東綱目》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朴仁鎬의 《宋元華東史合編綱目的 編纂과 編史精神》(《宋元華東史合編綱目》影印本 下卷收錄, 1998년, 奈堤文化硏究會)과 吳瑛燮의 《華西學派와 華東綱目》(《堤川義兵과 傳統文化》수록, 1998년, 堤川文化院), 김남일의 《朱子の 資治通鑑綱目的 凡例와 華西學派的 宋元華東史合編綱目的 書法比較》(《韓國史學史學報》22輯, 2010) 등을 주로 참고하였음.

있던 주자학의 이론을 통하여 춘추대의와 위정척사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병 활동과 함께 교육과 저술에 평생을 바쳤던 조선 최후 선비들의 순수한 정신만큼은 결코 폄하할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柳重教와 金平默에 의해 완성된 《화동강목》은 유인석에 의해 春川에서 간행되어 李恒老의 저술지시로부터 50년 만에 마지막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이 책은 朱子の 《자치통감강목》의 영향에 의해 새롭게 중국과 한국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朝鮮의 中華主義를 강조한 역사 저술이었다.

5. 맺음말: 생각해 볼 문제들

조선에서 小中華意識이 특별히 강조된 것은 대륙에서 明清 교체가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부터였다. 朱子の 《자치통감강목》에서 中華와 夷狄를 분명히 구분하여 문화민족으로 간주되는 한족의 정권에게 정통성을 부여한 역사관은 조선에서 그대로 이어졌다. 따라서 그동안 野人으로 불리던 滿洲族의 淸나라가 중원의 정통왕조가 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일이었다. 중원에서 문화 민족의 정권이 사라졌으나 그 문화중심(中華)은 조선으로 옮겨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발상이었다. 이러한 소중화 의식은 병자호란 이후 새롭게 민족정체성을 강조하던 宋時烈로부터 더욱 중시되어 조선후기 250여 년간 지속되었다. 19세기 중반에 이르면 서양세력을 등에 업고 먼저 개항하여 신식군대를 갖춘 일본이 조선을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정통 주자학자로서 송시열의 중화의를 계승한 李恒老는 이제 夷狄보다 더한 사악한 禽獸와 같은 외세를 막기 위하여 더욱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衛正斥邪의 주장을 펼쳤다. 새로운 문물과 더불어 물밀 듯이 들어오는 倭洋의 세력은 중화의 질서를 무너뜨릴 기세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를 막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內修外攘의 방법으로 서양의 종교로부터 정통 유학의 도를 지키

고, 밖으로부터 倭洋의 침범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衛正斥邪 운동이었다. 이항로의 尊華攘夷의 사상이 담긴 조선 중화주의는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하고 인류구원의 방향을 유교적 이상사회의 추구에서 찾고자 한 것이었다.

이항로는 존왕양이와 위정척사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자 김평묵과 유중교에게 朱子의 강목체로 宋元의 역사를 쓰도록 하였고 같은 시기의 高麗史를 대조하여 합편하도록 하였다. 《宋元華東史合編綱目》이 편찬되었지만 오랫동안 방치되었다가 마침내 柳麟錫에 의해 간행되었다. 이는 조선말기 주자학을 신봉하는 조선의 지식인그룹에서 망국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유인석은 위정척사의 사상을 실천하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격문으로 전국의 유생을 모아 호서의병을 일으키고 의병장으로서 혁혁한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의병활동이 여의치 않자 중국의 西間島(吉林)와 러시아의 沿海洲(海參威)로 진출하여 海外 항일의병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19세기말 외세의 침략에 대응하려는 조선지식인의 의식은 서양의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서 나라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開化派(主和派)와 금수같은 이적과는 결코 타협이나 화해할 수 없고 오로지 싸울 수밖에 없다는 主戰派(斥和派)로 나뉘었는데 이항로와 그의 제자들로 구성된 華西學派는 강력한 斥和派로서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조선최후의 선비그룹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들의 사상과 행동에 대해 생각해볼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조선후기에 일부 정통 주자학의 후계자들이 중화의식을 강화하고 있을 때 망국의 위기를 실감하고 있었던 조선의 또 다른 지식인들은 실제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丹齋 申采浩(1880-1936)는 사학자이면서 독립 운동가였다. 언론인으로 활약하던 그는 조선이 망국을 당한 이후에 중국에 망명하여 광복회를 조직하고 애국계몽운동에 헌신하였다. 또 역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北京에서 《朝鮮上古史》 등을 저술하여 민족주의적 역사관을 드러냈다. 그는 당시 외래 사상의 전래와 그 추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판적 시각을 보여주었다. 李恒老나 柳麟錫과 같은 정통 보수파의 입장

과도 달리 생각하고 있었다. 신채호는 주체적인 입장에서 외래사상을 받아들일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朝鮮사람은 매양 利害 이외에서 진리를 찾으려하므로 釋迦가 들어오면 朝鮮의 釋迦가 되지 않고 釋迦의 朝鮮이 되며, 孔子가 들어오면 朝鮮의 孔子가 되지 않고 孔子의 朝鮮이 되며, 무슨 主義가 들어와도 조선의 주의가 되지 않고 主義의 朝鮮이 되려 한다. 그리하여 도덕과 주의를 위하는 조선은 있고, 조선을 위하는 도덕과 주의를 없다. 아! 이것이 조선의 특색이나. 특색이라면 특색이나 노예의 특색이다. 나는 조선의 도덕과 조선의 주의를 위하여 곡하려 한다.”²³⁾

이밖에 당시 위정척사를 주장하던 화서학파에서 야만의 이적이라고 깔보기만 하던 滿洲族의 淸나라와 日本에서는 어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간단한 예를 들어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조선 중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만주족의 청나라는 입관 후에 적극적으로 中華문화를 수용하면서 특히 朱子學을 國政의 기본바탕으로 삼아 康熙帝때는 朱子の 《자치통감강목》을 만주어로 번역하도록 하였다. 이는 주자학을 통해서 漢族지식인을 설득하고 포섭하려는 하려는 의도도 담겨있었다. 다만 朱子가 강력히 주장한 華夷의 구분을 강조하는 대목은 적극 배제하도록 검열하여 만주인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²⁴⁾

특히 乾隆帝는 춘추대의에서 尊王사상을 강조하여 황제의 권한을 강화시키며 雍正帝때 살려두었던 呂留良을 처형하고 《大義覺迷錄》을 모두 불태워 없

23) 이상의 인용은 원문 申采浩의 《浪客의 新年漫筆》(東亞日報, 1925.1.2)에 실린 다음의 구절이다. 한편 노관범은 《한국 근대유교의 일독법: 世俗化와 共同體》(《500년 共同體를 움직인 儒敎의 힘》, 글항아리, 2013년)에서 당시(1925년) 신채호의 주장이 이에 앞서(1909년) 일본에서 나온 《日本宋學史》에서 日本思想史를 전개하면서 “일본에는 萬世一系의 國體와 固有한 美德이 있어서, 이를 근본으로 한 儒學은 ‘日本의 儒學’이 되고 佛敎도 ‘日本의 佛敎’가 되었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를 영향받은 것인지 모른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보편을 부정하고 지역적인 개체에 집착하는 발상이 과연 유학의 본래적 가르침과 일치하는지는 의문이라고 강조하였다.

24) 미국의 淸史학자 Matthew Mosca의 강연 <初期滿洲史料와 滿文 資治通鑑綱目>, 2016년 3월 8일 고려대학교 만주학센터. 모스카교수는 2008년 하버드대 박사이며 현재 워싱턴대 사학과 교수.

에도록 하였다. 청나라는 또한 전통적인 華夷의 개념을 변화시켜 중원의 한족을 비롯하여 만주족과 몽고족 등의 주변 민족도 모두 中華에 속한다고 하면서 시야를 넓혀 夷狄는 西洋의 침략세력이라고 강조하여 華夷를 中西의 대결로 몰아갔다. 청나라에서 이렇게 스스로의 위상을 고쳐가고 있을 때 조선에서는 여전히 南宋에서 고착된 좁은 의미의 華夷觀에 얽매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朴殷植이 쓴 글로 추정되는 다음의 글도 참고할 만하다. 1909년 《大韓每日申報》에 실린 글에서는 李恒老의 大明義理論과 衛道意識이 국가의 존망을 염두에 두지 않은 관념론일 뿐이라면서 일본 유학자의 애국적 입장과 비교하고 있다.

李華西는 한국유교의 거장이요, 山崎闇齋는 일본유교의 거장이니 二人의 학술, 문장을 較하건대 山崎씨가 華西문화의 一侍童에 불과할지라. 然이나 華西는 曰, '今日吾輩之責任, 儒教盛衰, 至於國家存亡, 猶屬第二事件이라'하고, 山崎는 曰, '來侵吾國者, 雖孔子爲將, 顏子爲先鋒, 吾當以讎敵視之'라 하니, 嗚呼라, 韓國의 強弱은 즉 양국 儒教教徒의 精神에 관하여서는 可判이로다. (1909년 《大韓每日申報》사설)

이 글의 작자는 李恒老가 학문적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정통 儒學의 道에 집착하여 민족과 국가에는 오히려 등한하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 글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목은 이항로의 《華西集》 附錄, 卷五 <柳重教錄>에 나오는 다음의 구절을 지칭하는 것이다.

서양이 도를 어지럽힘이 가장 걱정스러우니, 천지간의 일맥 양기는 우리 동국에 남아있는데 이마저 함께 무너져 내리면 세상이 어찌 차마 견딜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세상을 위하여 그 핵심에 들어가 그 도를 밝히려는 것이니 마치 시급하게 불을 끄려는 것과 같도다. 나라의 존망의 문제는 그 다음의 일이라 하겠다 (西洋亂道最可憂, 天地間一脈陽氣在吾東, 若并此被壞, 天地豈忍如此. 吾人爲天地入心, 以明此道, 汲汲如救焚, 國之存亡猶是第二事.)²⁵⁾

25) 李恒老 《華西集》 附錄, 卷五 <柳重教錄>.

이항로는 이처럼 도를 지켜내야 한다는 衛道論을 강조하면서 국가적 위기를 당하고 있었던 丙寅洋擾(1866)때 국가나 왕조보다도 유교 문화적 가치체계의 확립이 시급함을 역설하였던 것이다. 그는 세상을 구하려는 원론적인 구도자로서 자처했다. 유교적 가치와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곧 나라를 보전하는 길임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유교적 문화와 윤리체계를 보존하고 있는 나라가 문명국이며 곧 중화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화동강목》은 유교문화 중심론에 의해 쓰여진 韓中公동의 역사서인 것이다.

그러나 앞서 申采浩의 주장에 대한 반론 또한 최근 학자들의 새로운 목소리로 나오고 있다. 조선왕조의 망국의 위기 앞에 외적을 대하는 태도를 위정척사로 공고한 원칙을 세우고 역사를 바라보는 변함없는 원칙으로서의 正統과 華夷로서 스스로의 민족적 자존심을 지킨 화서학파를 단순히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주자학의 낡은 보수파로 보기에 는 적절치 않은 면도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조선 최후의 유학자로서 학문적 원칙을 지키고 망국의 위기에 실천으로 대처한 진정한 조선선비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간과하기는 어렵다.

< 參考文獻 >

- 李恒老, 《華西集》, 光武3年(1899), 국립중앙도서관, 《韓國文集叢刊》 301-305.
 金平默, 《重菴集》, 1906년,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韓國文集叢刊》 319-320.
 柳重教, 《省齋集》, 1897, 1927년,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각, 《韓國文集叢刊》 323-324.
 柳麟錫, 《穀菴集》, 연도미상, 국립중앙도서관, 《韓國文集叢刊》 337-339.
 華西學派, 《宋元華東史合編綱目》, 奈堤文化硏究會 영인, 1998, 제천.
 독립기념관 편역, 《국역의암집》(천지인乾坤), 제천문화원, 2009, 제천.
 정옥자,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 연구》, 일지사, 1998, 서울.
 허태용, 《조선후기 중화론과 역사인식》, 아카넷, 2009, 서울.
 우경섭, 《조선중화증의의 성립과 동아시아》, 유니스토리, 2013, 서울.

- 배우성, 《중화와 조선》돌베개, 2014, 서울.
- 오영섭, <華西學派와 華東綱目>, 《堤川義兵과 傳統文化》, 堤川文化院, 1998.
- 박인호, <송원화동사합편강목의 편찬과 편사정신>, 《宋元華東史合編綱目》下卷, 奈堤文化硏究會, 1998.
- 김남일, <주자의 《자치통감강목》의 凡例와 화서학파의 《송원화동사합편강목》의 書法비교>, 《한국사학사학보》 제22집, 2010.12.
- 김호, <조선후기의 중화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서평), 《정치와 평론》 제9집, 2011.11.
- 정우택, <연해주 한국의병 倡義大將, 毅庵 柳麟錫 - 창의대장 金斗星은 柳麟錫과 동일인>, 《毅庵學硏究》 제11호, (社)毅庵學會, 2014.
- _____, <안중근의사의 독립운동과 毅庵 柳麟錫관련연구 - 안중근의 연해주의병 활동과 하얼빈의거를 중심으로>, 《2015년 화서학회 학술대회 발표문》, 25-61쪽, 2015.10.

< Abstract >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famous scholar Song Siyuel (宋時烈1607-1689) advocated for the principle of "Respect the Zhou"尊周論, which maintained that Koreans should honour Confucian orthodoxy and actively fight against the newly established Qing Dynasty in China. However,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Li Hanglo (李恒老 1792-1868) embraced Song's principle in his establishment of the Hwaseo School 華西學派, calling for the people to respect China and repulse the barbarians as he led the battles against Westerners arriving by boat. He asserted that all religions and ideas other than Neo-Confucianism were dangerous and heterodox. As Qing China was collapsing, Li asserted that the Joseon Dynasty had a responsibility to re-establish the civilization in Korea. This line of thought was known as Joseon-Junghwaism 朝鮮中華主義. Li went on to compile the *Compendium on the History of China and Korea in the Song and Yuan Dynasties* 宋元華東史合編綱目,

which discussed the Sino-barbarian dichotomy as seen in this 408 years of history. You Yinseok (柳麟錫 1842-1915), Li's successor in the Hwaseo School, continued the tradition of respecting China and raised an anti-Japanese army to fight for justice after the assassination of Queen Min in 1895.

The particular Sinocentrism of Joseon-Junghwaism as practiced by the Hwaso School aimed to correct Chinese civilization with neo-Confucianism, at the same time it was a principle that offered national self-respect and a method of survival in the modernizing world.

Key Word: Late Joseon Dynasty, Sinocentrism of Joseon-Junghwaism, Hwaseo School, Li Hanglo, You Yinseok, *Compendium on the History of China and Korea in the Song and Yuan Dynasties*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6. 10. 31.	2016. 12. 01.	2016. 12. 06.	2016. 12. 16.	2016. 12. 31.

